

치 사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우리나라 불교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의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행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더불어 불교문화라는 찬란한 꽃을 피워왔으며, 불교음악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읽어내고 이를 담아내기 위해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음악회 교성곡인 <붓다>는 성일스님의 작사와 박범훈 선생의 작곡으로 창작되었으며, 1991년 초연한 이래 많은 불자들로부터 감동과 찬사를 이어온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보이지 않는 수행의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진실한 소리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참다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각박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위안을 제공하고 불교음악의 소중한 가치도 일깨워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봉축음악회 <붓다>를 축하하며, 대중들을 향한 희망의 소리가 사바세계를 어우르는 법향이 되어, 모든 고뇌를 맑게 씻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4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